

SKT, AI 플랫폼 확대로

'누구(NUGU)' 월 사용자 1천만명 달성

**- 9월 한 달간 약 1천22만여 명이 다양한 접점을 통해 ‘누구’ 플랫폼 사용**

**- 2016년 ‘누구 스피커’ 출시 후 플랫폼 지속 확대… 언제 어디서나 AI를 만날 수 있는 ‘누구 에브리웨어’ 지향**

**- 18일부터 기념 이벤트 개최… ‘누구’에게 “아리아, 파이팅!”이라고 하면 풍성한 경품 제공**

|  |
| ---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2021. 10. 7]**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자사의 AI 플랫폼 ‘누구(NUGU)’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지난 9월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SKT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T전화 x 누구’ᆞ’TMAP x 누구’ᆞ’B tv x 누구’ᆞ‘누구 스피커’ 등 다양한 ‘누구’ 플랫폼의 사용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약 1천22만여 명의 고객들이 누구를 한 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SKT는 2016년 AI 스피커 ‘누구’를 선보인 이후 TMAPᆞB tvᆞ키즈폰ᆞT전화 등 다양한 분야로 사용영역을 확장해왔다. 또한 2018년에는 AI 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누구 디벨로퍼스'를 공개했고, 2019년에는 ‘누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NUGU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외부에 공개해 다양한 니즈를 가진 제조업체 및 개발자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서비스와 상품에 ‘누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T는 이러한 고객 접점 확장을 통해 ‘누구’를 단순한 AI 서비스가 아닌 AI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왔으며,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생활 속 모든 순간에 ‘누구’가 함께하는 ‘누구 에브리웨어(NUGU everywhere)’를 지향하고 있다.

SKT는 ‘누구 에브리웨어’를 목표로 집(B tv x 누구ᆞ누구 스피커 등), 자동차(TMAP x누구ᆞ누구 오토 등), 커뮤니케이션(T전화 x 누구ᆞ누구 버즈ᆞ누구 케어콜 등)까지 영역을 넓혀왔으며, 앞으로도 ‘누구’ 적용 기기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SKT는 ‘누구’ 사용자 1천만명 돌파를 기념해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T전화 x 누구’ᆞ’TMAP x 누구’ᆞ‘누구 스피커’ 등 ‘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서비스에서 “아리아,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안내에 따라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폰13(1명) ▲애플워치 7세대(3명) ▲네스프레소 시티즈 커피머신(5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200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1,000명)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1월 5일 누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아 SKT AI&CO장(컴퍼니장)은 “다양한 접점을 통해 ‘누구’를 제공한 것이 사용자들의 편의향상과 이용자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생활 속 어디서든 쉽게 AI 플랫폼을 접할 수 있는 ‘누구 에브리웨어’를 목표로 고객 편의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기업PR팀 정 욱 매니저 (02-6100-3881)**

**<끝>**